

## PSEG, 대한민국 에너지·제조 공급업체와 파트너십 강화 및 청정 에너지 혁신을 위한 노력 확대

대한민국 — 공공서비스엔터프라이즈그룹 법인(PSEG)과 에너지 기업인 제룡전기와 호반그룹의 대한전선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발생한 공급망 중단으로 인해 형성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재약정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지속되던 시기에 PSEG는 제룡전기 및 대한전선과 협력해 뉴저지 고객들의 전력 공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두 가지 핵심 부품인 변압기와 전력 케이블을 확보했습니다. 양측은 오늘 뉴저지 주지사가 주관하는 동아시아 경제 사절단인 Choose New Jersey의 표창장 서명식에 참여했습니다. 이 표창장은 공급업체에 대한 PSEG의 감사와 지속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한층 더 깊은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의 설명은 이러합니다. “팬데믹이 발생한 후 지구상의 거의 모든 선진국의 경제가 공급망 붕괴로 인한 타격을 입었고 뉴저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뉴저지의 경우 대한민국의 두 기업, 제룡전기와 대한전선이 PSEG와 협력하여 수백만 명의 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대륙과 시차를 넘어선 국제적인 파트너십이 뉴저지 주민들의 일상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경제가 모두 팬데믹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지금, 우리에게 뉴저지와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 확인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PSEG의 회장, 사장 겸 CEO인 랄프 라로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님과 영부인, 그리고 Choose New Jersey 사절단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 제룡전기, 대한전선과의 파트너십을 다시 맺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파트너십은 PSEG와 우리 고객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었으며, 이처럼 귀중한 대한민국 공급업체가 이번 무역 사절단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파트너십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일본과 대한민국의 기업은 우리 주와 깊은 관계를 맺고 뉴저지의 숙련되고 교육받은 다양한 인력과 최고 수준의 대학,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연결성이 우수한 뉴저지의 뛰어난 입지를 활용하여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PSEG는 120년 동안 뉴저지에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저지가 얼마나 거주하고, 일하고, 사업을 하기 좋은 곳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PSEG와 뉴저지를 대표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어크에 본사를 둔 에너지 회사인 PSEG는 주로 규제 대상 유틸리티(PSE&G)와 원자력 발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워링 프로그레스(Powering Progress) 비전을 통해 PSEG는 사람들이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룡전기는 서울에 본사, 대전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전원 공급장치 제조업체입니다. 제룡전기는 배전과 철도 인프라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을 포함한 전기 변압기 생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제룡전기 박종태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22년은 PSE&G와 제룡전기 양사에 중요한 해였습니다. 높은 품질의 배전 변압기를 공급하면서 처음부터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PSE&G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이 파트너십이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기억되길 바라며, 뉴저지와 대한민국에서 기회를 찾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호반그룹은 대한민국 30대 기업이며 대한전선의 모기업입니다. 대한전선은 전기 케이블 생산을 전문으로 하며 제조와 유통, 재정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호반그룹 김선규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955년에 설립된 케이블 업계의 선두 주자 대한전선은 68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최초의 케이블 제조업체입니다. 2000년 미국지사 설립 이후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 덕분에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PSEG에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PSEG와 더욱 굳건한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뉴저지 사회에 공급업체로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을 타협하지 않고 고객을 위해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Choose New Jersey의 사장 겸 CEO인 웨슬리 매튜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저지와 대한민국은 양국의 경제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원대한 에너지 목표와 일자리 계획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PSEG와 제룡전기, 대한전선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 공급을 위해 협력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에너지 전환에 대비해 인력을 양성하는 가운데, Choose New Jersey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정 에너지의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파트너사의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를 전합니다.”

뉴저지 동아시아 경제 사절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한 취재진은 마헨 구나라트나([mahen.gunaratna@nj.gov](mailto:mahen.gunaratna@nj.gov))와 잉그리드 오스틴([iaustin@choosenj.com](mailto:iaustin@choosenj.com))에게 문의하거나 [choosenj.com/EastAsiaMission](https://choosenj.com/EastAsiaMission)에 방문하여 추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hoose New Jersey 소개**

Choose New Jersey는 뉴저지의 가장 대표적인 비영리 경제 발전 단체입니다. 뉴저지 경제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 자본 투자를 촉진합니다. 전 세계에 뉴저지를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여가를 즐기기에 좋은 곳으로 알리고 있으며, 뉴저지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려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주 정부 기관과 민간 파트너 기관의 지원을 받는 당사 직원은 뉴저지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밀 유지 무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choosenj.com](https://choosenj.com)을 방문하세요.